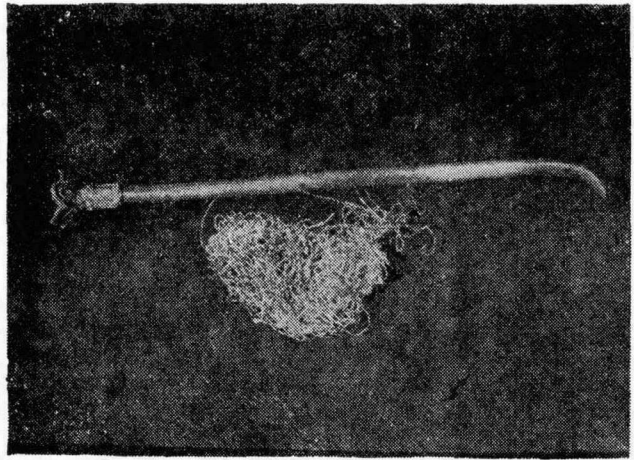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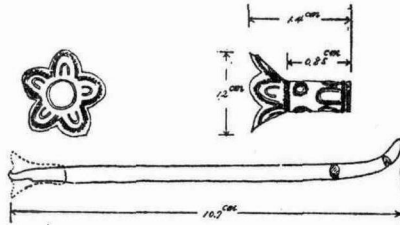


은綾絹같은 衣服地위에 紋樣을 놓았던 것으로서 그것이 腐蝕됨에 金絲만이 남은 것이 아닌가 한다.

重量
銀製柄 一〇・六g
純金具 一・五四g
金絲 一・一〇g



扶餘郡瓏岩面咸陽里出土 實物二倍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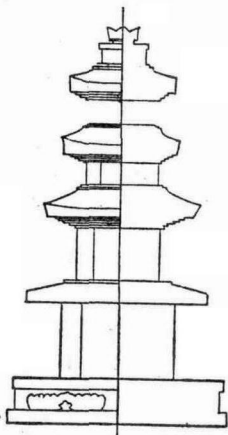
青陽 南泉里 三層石塔

金 永 培

公州에서 青陽街道로 約十五km地點 青陽郡 木面 松岩里 公須院에서 下車하여 北方으로 溪谷을 따라 約六km쯤 山中으로 들어가면 青陽郡 定山面 南泉里(담골)라고 하는 山谷에 이르는데 여기에 廢寺址가 있고 三層石塔이 一基 遺存되어 있어서 그 狀況을 簡單이 紹介하여 둔다.

廢寺址에는 다른 遺物은 찾아 볼 수 없고 瓦片만이 多數散在하여 있는데 寺址의 規模로 보아 조그마한 절터임을 알 수 있고 寺名은 전혀 찾을 수 없으며 寺址에서 南쪽으로 約二〇〇m 떨어진 平坦한 山麓에 石塔이 一基 남아 있는데 塔은 花崗石의 方形三層石塔으로서 작은 作品이나 雅淡하게 製作되었으며 現在 遺存狀態는 三層屋身石만이 逸失되고 相輪部로서는 露盤과 仰花가 남아 있으며 三層屋蓋石은 塔下에 떨어져 있는데 現存한 塔材에는 破損된 部分이 없이 完全한 原狀을 維持하고 있으며 仰花가 세쪽으로 갈라진채 露盤위에 놓여있고 擦柱孔은 仰花와 露盤에는 丸形으로 뚫렸는데 三層屋蓋石에는 長方形으로 鑿出되어 있다. 基壇部는 二層基壇으로 되어 있는데 現在 下臺甲石以下는 地下에 埋沒되어 있어서 調査時

에 一部를 파내고 보 니 下基壇中石에는 一面에 眼象이 二區씩 彫刻되어 있고 基壇部의 上下 甲石이 모두 一枚石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現在 遺存한 位置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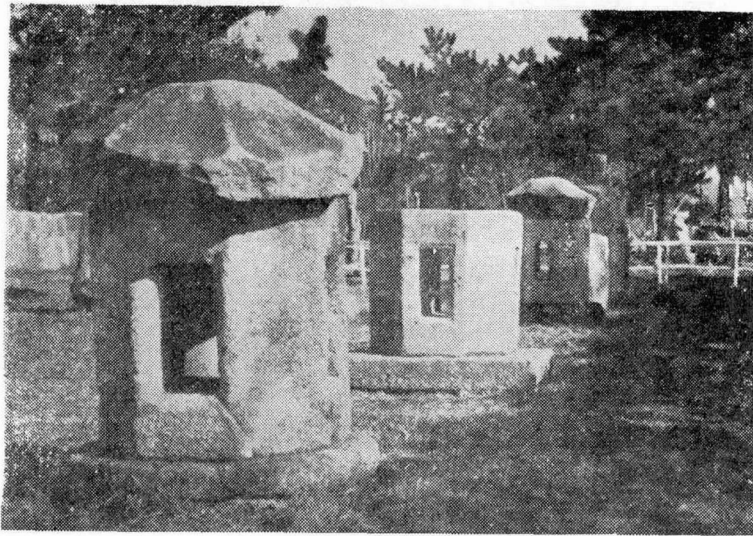
青陽 三層石塔
S=20:1

아原來寺內에 建立하는 佛塔이 아니고 層塔形式의 浮屠塔으로 考察되
며 製作年代는 作品의 手法으로 보아 高麗로 推定된다.

益山 彌勒寺址의 百濟石燈

黃 壽 永

解放後 彌勒寺址에 대한 調査에서 發見된 古代의 石造遺物 및 瓦博類



는 數次에 걸쳐 扶餘博物館에 移管되었다. 이 調査는 洪思俊氏와 筆者가 擔當하여 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三基石燈의 存在를 말하는 火舍石三個를 비롯하여 그 屋蓋石 蓮花紋臺石等인데 이들은 一九五五年부터 數年間に 收拾 또는 發掘된 것이다. 이 곳에 石燈材만을 간단히 紹介하며 瓦博等은 次後로 다루기로 하겠다. 彌勒寺址에서 石燈材가 出土되었다는 말은 一九五五年

十一月 金馬面의 益山中學校長 蘇秉敦^①氏를 찾았을 때 同氏로부터 처음 들었다. 그리하여 洪氏와 筆者는 夕陽길을 달려가서 寺址南方約 1km 地點인 彌勒國民學校校門左右에 移置되어 있는 것을 確認할 수 있었다. 이때 조사된 것은 火舍 二個(모두 完全)와 屋蓋石 一個(大形品)이었는데 이들은 寺址部落에서 國旗揭揚臺石으로 使用된 일도 있었다는 事實을 알 수 있었다.

다음 一九五七年 一月에는 部落民의 敎示에 따라서 石塔 東方인 논가에 埋沒되어 있는 火舍石^② 一個를 發掘하였으며 同時に 石塔南面 約 3m 地點에서 尖端을 地表에 露出시키고 있는 蓮花紋石小片을 發掘하였다. 끝으로 一九五七年 十月에는 寺址中央을 貫流하는 川邊에서 蓮花紋臺石^③ 一個와 屋蓋石片(小品) 一個를 收拾하였던 것이다. 以上 計七個의 石燈材 以外에도 八角石柱를 川邊에서 收拾하였으나(今在扶博)石燈竿石으로 推定하기 어려우므로 除外한다.

二

火舍石 三個는 거의 同一規模의 八角石으로서 長方火窓이 交互로 四面에 鑿려 있으며 모두 內空으로서 上面의 圓孔과 貫通되어 있다. 火窓 周邊에는 輪廓線이 一段乃至二段으로 마련되었고 窓門을 달았던 釘鉤孔이 上下左右에 一定間隔을 두고 과져 있다. 八角面이 모두 上廣下狹의 彫法을 보이고 있는 것은 各例에서 同一하다. 다만 三個中 가장 큰 火舍石(圖面) 上面에는 둥근 데두리가 얇게 둘러있는 바 이것은 屋蓋石과의 結構에서 浸水防止를 위한 用意로 생각되었다.

屋蓋石 大小二個는 모두 不完全하여 擔端은 全缺되었는데 八角을 이루는 轉角部에는 낮은 隅棟形이 隆起되어 있으며(大形品에서) 內面은 둥글게 파내어서 頂上에 이르러 寶珠를 끼었던 圓孔을 마련하였다. 蓮花紋臺石 二例中 小片은 蓮花 二瓣(瓣幅 三·三cm 高 二·九·五cm)뿐이며 다른 하나는 中央에 竿石을 받던 圓孔이 있고 그 둘레에 四瓣의 蓮花가 남아 있고 下面에는 一段의 턱을 받들고 있다. 이 蓮花紋樣式은 花瓣이 넓고 內彎되었으며 小片은 尖端을 突起시키고 있다. 以上の 各石은 모두 彫法이 溫和하여 優雅素朴한 作風을 보이고 있어 百濟末 彌勒寺 創建(七